

올해 농지은행사업 1653억원 지원

농어촌공 전북본부, 지난해 보다 247억원 증액... 올 상반기 70% 이상 조기집행 위한 사업 추진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강환)는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농지은행사업 전북본부 예산을 작년보다 247억원 증액된 1,653억원 확보하여 상반기에 70% 이상 조기집행 할 수 있도록 활발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농지은행 사업 1,653억원 세부 집행계획을 살펴보면,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인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800억원, 매매/장기임대차 사업 250억원, 경지정리 또는 개인 교환분합사업 0.4억원을 지원해 주고 ▲자경이 어려운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임대하여 농업인에게 임대해주는 임대수탁사업 1,575ha를 시행하고 ▲과도한 부채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정상화

를 지원하는 경영회생사업에 362억원에 지원하게 된다. ▲고령농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농지연급 사업에 81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를 촉진하기 위한 경영이양직불금 지급으로 120억원을 집행해 고령농업인에게 평균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청년창업농과 2030세대 농업인이 농지를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 젊은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고령·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하는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전업농육성대상자(청년창업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귀농인, 일반농업인)에게 농지

를 임대로 지원해주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맞춤형농지지원사업 추진 이후 지역별 농업·농촌의 균형적 발전과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사업 참여에 차별화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청년창업농, 2030세대 뿐 아니라 농어촌에서는 아직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4050세대와 쌀전업농 등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새로이 시작하는 '공익형직불제' 즉, 재배작물과 상관없이 동일금액 지급되고, 소규모 농가는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 지급되며, 역진적 면적 직불금 지급 양극화 개선에 기여하고자 시행되는 등 직불제에 중소농

업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에게 공사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에게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농업인에게 다가가는 행정, 도움이 되는 사업추진을 할 계획이다.

사업비 신청은 농지은행포털(<http://www.fbo.or.kr>)로 본인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해당 시·군 인근지사 농지은행부를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1577-7770에 문의하면 담당자에게 연결돼 우선으로 상담 받을 수 있다.

이강환 본부장은 "올해 상반기에 농지은행사업비를 조기 집행해 농가 경영에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 최창학 사장이 24일 송하진 도지사의 비통을 넘겨받아 코로나19로 위축된 화훼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해 '꽃 선물 릴레이'에 동참했다.

지역 화훼농가 살리기 동참

LX 최창학 사장, '꽃 선물 릴레이' 참여

한국국토정보공사(LX) 최창학 사장이 코로나 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화훼 농가 살리기에 힘을 보탤다.

최창학 사장은 24일 송하진 도지사의 비통을 넘겨받아 코로나19로 위축된 화훼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해 '꽃 선물 릴레이'에 동참했다. 이어 다음 참여자로 조성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과 김수영 한

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을 지명했다.

최 사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화훼농가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전체가 큰 시련을 겪고 있다"며 "LX는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와 자치단체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지역 화훼농가를 살리기 위해서도 다방면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청년 구직자 성공정착 지원금 신청접수

전북도경진원, 청년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청년 구직자 성공정착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 구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고용 문제 해결과 도내 기업 일자리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취업희망 청년층에게 1인당 최대 50만 원의 성공정착 지원금을 지원한다. 도내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부터 39세 이하 청년층은 신청 가능하며,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 여부 확인 후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

하게 된다. 경진원은 이번 사업을 통하여 취업자의 성공적인 정착 유도를 통한 도내 기업 인력난 해소와 청년층 취업을 제고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선순환 구조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

'청년 구직자 성공정착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를 진행하며, 모집과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경진원 홈페이지(www.jbba.kr) 또는 전라북도일자리종합센터(1577-0365)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는 최근 전북지부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소독을 실시했다.

건협 전북지부, 코로나19 방역에 최선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이하 건협 전북지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소독을 실시했다.

건협 전북지부 관계자는 "고객 분들의 안전을 위해 환경부 승인을 받은 코로나19 방역제품을 사용해 건물 전층을 소독했다"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건협 전북지부는 안전한 검진환경을

위해 열화상카메라 설치, 출입 전 체온 측정, 위험지역(WHO 보고에 근거한 해외 및 국내) 방문 이력 확인, 확진자의 접촉자 여부 확인 등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청사 곳곳에 손소독제를 비치하여 감염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유통화폐로 코로나19 전파 안되도록 유의"

한은, 각 지역본부에 당부

한국은행이 유통화폐를 취급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파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각 지역본부에 당부했다.

한은은 24일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화폐취급업무 수행시 유의사항 안내'를 각 지역본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화폐 발행·수납·교환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되거나 감염 대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기관 수납 화폐의 경우 바이러스 생존 기간이 최대 9일인 점을 감안해 최소 2주간 금고 내에서 보관 후 정사(整理) 처리해달라고 언급했다.

정사 작업은 환수된 화폐 중에서 위·변조화폐, 손상화폐를 선별하는 화폐정리 업무를 말한다.

한은 관계자는 "정사 완료된 지폐는 자동포장 과정에서 15°C 고열에 2~3초 가량 노출되는 데다 포장 직후 포장지 내부온도가 42°C 정도에 달해 살균처리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60°C 이상의 고온에서는 감염성이 약화되고 37°C 실온에서 2시간이 경과하면 감염 효과가 소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가급적 제조화폐와 정사처리가 완료된 지폐를 지급하고, 오염화폐는 폐기를 적극 유도한다. /뉴시스

딸기·수박 꽃가루받이 표준화

농진청, 맞춤형 수분 기술로 꿀벌 벌통 수명 연장 등 기대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원예작물 중 생산액이 가장 많은 딸기와 수박을 대상으로 꿀벌을 이용한 맞춤형 수분(꽃가루받이) 기술을 표준화했다고 24일 밝혔다.

전 세계 주요 작물의 70%는 열매를 맺기 위해 꽃가루받이를 해 줄 곤충이 필요하나 최근 기후변화, 도시화 등으로 화분매개곤충의 수가 급격히 줄어 작물 생산성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시설 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화분매개곤충의 현장적용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번에 표준화한 기술은 딸기와 수박 맞춤형 화분매개용 꿀벌 준비 방법, 작물별 재배순서와 재배방식에 따른 적정 봉군 크기, 벌통 설치 방법, 꿀벌 봉군의 먹이 관리 등이다.

꽃가루받이를 할 때 100% 화분매개 곤충을 사용하는 딸기는 표준화된 기

술을 사용할 경우, 꿀벌 벌통 수명 1개월 연장, 기형과율 2배 감소(축향 기준) 등으로 생산성이 높아져 10a당 약 9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다. 딸기 화분매개용 꿀벌은 월동사망 전 화분매개용 봉군을 사용하고, 설치하는 방향 관계없이 입구에서 20m 지점이 좋다. 토경재배의 경우 지면 또는 띄워서 설치하고 고설재배는 베드 아래를 피해 빛이 잘 드는 곳에 띄워서 설치한다.

수박의 경우, 꿀벌 수분이 인공 수분보다 비용은 58% 줄어든 채 과율은 5% 높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10a당 약 16만 원의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다.

수박 화분매개용 꿀벌은 여왕벌이 산란 중지하면서 화분매개 일벌이 양성된 봉군을 사용한다. 축성재배일 경우 7,500마리(벌집 2~3매 이상), 반축성재배일 경우에는 5,000마리(벌집 2매)가 필요하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